

**아돌프 로스의 건축사상에 기초한 라움플란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Raumplan based on the Architectural Thought of Adolf Loos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Adolf Loos showed important directionality in the thought of modern culture and architecture. The thought about the architecture of Adolf Loos was gathered by "Raumplan". It is the solution of the plan in space. But the concept and method of the "Raumplan" had not been synthesized until near the end of Loos's life. Loos's first reference to the "Raumplan" appears in 1929. I think that "Raumplan" became the solution of the plan in space with a formation process of the thought about the architecture and culture of Adolf Loo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derived a characteristic of "Raumplan" from the relations between the architectural thought of Adolf Loos and "Raumplan". The process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Consideration about the growth background of Adolf Loos and the social situation of Vienna. (2) Analysis about architecture and the cultural critic of Adolf Loos. (3) Analysis of "Raumplan" based on architectural thought of Adolf Loos.

As a result, I got the four characteristics of "Raumplan" as follows. (1) Separation and continuation of "Raum". (2) Fragment of "Raum". (3) Overlay and transmission by the axis of multiplex eyes. (4)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Raum" by Hierarchy. Finally, I understood the architecture which Adolf Loos pursued in "Raumplan" had a high function and contained the clear meaning and contents which had practical use and economic value, and it were not a results of the simple logic.

키워드 : 아돌프 로스, 건축사상, 라움플란

Keywords : Adolf Loos, Architectural Thought, Raum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돌프 로스는 18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세기의 전환기에 빈을 주 무대로 활약한 근대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논설 '장식과 범죄(Ornament und Verbrechen)'로 대표되어지는 그의 장식배제의 사상은 로스를 근대문화의 위대한 비평가로서 높이 평가 받게 하였고, 건축내부의 공간구성에 관한 공간계획 수법인 '라움플란(Raumplan)'¹⁾으로 대표되어지는 그의 건축공간사상은 근대 세계의 '형식(Type)으로서의 물체(object)'를 총괄적으로 사고함으로 순수주의의 유형론(typology)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위대한 건축가로서 평가받게 하였다.²⁾ 그러나 니콜라스 펄스너가 "아돌프 로스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³⁾라고 지적한바와 같이 근대건축사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몇몇의 저술 내용과 라움플란에 대한 해석의 범주 안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적지 않다. 아돌프 로스에 대한 연구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의 만년의 제자였던 하인리히 쿨카(Heinrich Kulka)에 의해 1931년 출판되어진 로스 최초의 작품집 '아돌프 로스(Adolf Loos)'⁴⁾이다. 쿨카는 이 작품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로스의 건축가로서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다. "(전략) 로스는 근대 건축관의 발단이 된 인물이며 누구도 공적으로는 고백하고 있지 않지

1) 라움플란(Raumplan)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space planning'의 의미로 해석되나 독일어의 'raum'은 'space'와 'room'의 중간적 의미를 갖으며, 각각의 완결성을 갖는 'raum' 상호간의 관계를 계획하는 로스의 독자적인 공간계획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中村敏男譯, 靑土社, 2003, p.167

3) Münz, L. and Künstler, G., Adolf Loos: Pioneer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1955에 기고한 N. Pevsner의 Introduction

4) Heinrich Kulka, Adolf loos: Das Werk des Architekten, Verlag Anton Schroll, Wien München, 1931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2-G00021).

만, 알려지지 않은 채 모방되어져 근대건축의 모든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다. (후략)⁵⁾ 로스의 건축공간수법으로 알려진 '라운드플란'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어진 것도 이 작품집을 통해서였다. 쿨카는 이 작품집에서 라운드플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아돌프 로스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새로우며 보다 고도의 공간사상이 생성되었다. 그것은 자유로운 공간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건물을 층별로 수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버리고 다양한 높이의 공간을 조합하여 상호간에 관계하는 공간이 공간적으로 낭비 없는 조직체를 만들어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후략)"⁶⁾ 이와 같은 견해는 쿨카 이후의 로스에 관한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현재까지도 로스의 라운드플란에 대한 연구의 틀로서 활용되어지는 예가 적지 않다. 즉, 로스의 라운드플란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로스의 건축공간에서 쿨카가 주장한 라운드플란의 개념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⁷⁾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는 '라운드플란'이 실제로 로스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것은 1919년 이후이다. 즉 처음부터 '라운드플란'이라는 수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리어 로스 자신의 언설(discourse) 등으로 판단하여볼 때 루드비히 뮌츠(Ludwig Münz) 등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로스의 다양한 건축·문화적 사상에 의해 형성되어진 건축공간에 대한 사고가 서서히 '라운드플란'이라는 건축공간계획을 위한 하나의 개념이자 수법으로 형성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스의 라운드플란이 하나의 건축수법으로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그의 건축사상⁸⁾의 형성과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밝히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그러한 로스의 건축에 대한 사상적 특성이 '라운드플란'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로스의 건축사상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유년기로 부터 미국 체제

5)Kulka, Heinrich, Adolf loos: Das Werk des Architekten, 岩下眞好 等譯, 泰流社, 1984, 하인리히 쿨카의 서문.

6)Kulka, Heinrich, Ibid., p.17

7)예를 들면 이세영 등의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운드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7권 2호, 1997. 10', 이지영 등의 '아돌프 로스의 주택에 나타난 라운드플란의 특성과 공간구성의 진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권 2호, 1999. 10' 등이 있다.

8)로스의 건축사상에 대한 고찰은 그의 저서 'Ornament und Verbrechen'에 실린 논설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번역자가 선택한 원저에 따라 실린 논설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번역자에 의한 다음의 번역서를 기본 자료로 한다. ①Adolf Loos, Ornament und Verbrechen, 현미정 역, 소오건축, 2006, ②アドルフ・ロース, 裝飾と犯罪-建築・文化論集, 伊藤哲夫 譯, 中央公論美術出版, 2005

<표 1> 아돌프 로스의 건축작품과 건축·문화 비평 리스트⁹⁾

완성년도	작품명	건축유형	라운드플란 적용	건축·문화 비평
1898	Herrenmodegeschä -ft Goldmann	인테리어	X	공예학교의 학생전시회 (1897)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상탄절 전시회 (1897) 공예전망 1, 2 (1898) 신사복 (1898) 인테리어 (1898) 로텐데의 인테리어 (1898) 얇은 가구 (1898) 신사모자 (1898) 호텔킨의 도시 (1898) 건설 재료에 대해서 (1898) 피복의 원리 (1898) 가구 (1898) 건축에 있어서의 신구의 방향 (1898)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영국학과 (1899) 어느 가난한 부자의 이야기 (1900) 숙녀복 (1902) 주거 견학회 (1907) 과잉의 것들 (1908) 문화의 범질 (1908) 장식과 범죄 (1908) 건축에 대해서 (1909) 나의 건축학교 (1913)
1899	Café Museum	인테리어	X	
1899	Wohnung Hugo Haberkfeld	인테리어	X	
1901	Wohnung Leopold Langer	인테리어	X	
1902	Wohnung Walter Sobotka	인테리어	X	
1903	Wohnung Adolf Loos	인테리어	X	
1904	Haus am Genfer See	인테리어	X	
1904	Wohnung Alfred Krous	인테리어	X	
1905	Wohnung K. 외 2작품	인테리어	X	
1907	Kärntner Bar	인테리어	X	
1907	Schmuckfedernges -chäft Steiner	인테리어	X	
1909	Wohnung Leopold Goldman 외 2작품	인테리어	X	
1910	Haus Steiner	신축	X	
1910	Haus auf dem Michaelerplatz	신축	X	
1912	Haus Scheu	신축	X	
1913	Wohnung Bellack 외 1작품	인테리어	X	
1913	Haus in der Sauraugasse	신축	X	
1913	Café Capua	인테리어	X	
1913	Herrenmodegeschä -ft Knize	인테리어	X	
1914	Haus Mandl	개축	X	
1915	Haus Duschnitz	개축	X	
1916	Wohnung Emil Löwenbach	인테리어	X	
1919	Haus Strasser	개축	○	가구의 추방 (1924) 장식과 교육 (1924)
1920	Geschäftshaus Mandl	인테리어	X	
1922	Haus Rufer	신축	○	
1923	Haus Spanner	신축	X	
1926	Haus Tristan Tzara	신축	○	
1927	Herrenmodegeschä -ft Knize	인테리어	X	
1928	Haus Moller	신축	○	
1929	Wohnung Josef Vogl 외 4작품	인테리어	X	
1929	Geschäftsportale der Firma Albert Matzner	인테리어	X	
1930	Landhaus K.	신축	X	
1930	Haus Müller	신축	○	

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여 그의 사상적 형성의 기반을 밝힘과 동시에 로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당시의 빈의 시대적

9)본 표의 건축작품은 로스 최초의 작품집 'Adolf loos: Das Werk des Architekten'에 게재된 작품 중 실제 건축되어진 작품만을 정리한 것임. 라운드플란의 적용여부는 저자인 쿨카의 견해에 의한 것으로 로스는 본 작품집의 인사말에서 자신의 사상을 지켜온 쿨카의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라운드플란의 적용에 대한 쿨카의 의견에 찬동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의 건축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회적 관점을 재확인한다. 3장에서는 로스의 건축사상과 건축에의 적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의 건축·문화비평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1897년부터 1918년의 논설과 작품을 중심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 사상적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로스의 건축사상과 건축적 특성을 밝힌다.<표 1> 4장에서는 3장까지의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로스의 사상적 특성과 건축수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라움플란'이 적용되기 시작한 1919년 이후의 라움플란이 적용된 5개의 주택작품을 중심으로 라움플란의 구현 방법과 특성을 분석, 고찰한다.<표 1>

이상의 연구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로스의 건축사상에 의해 형성되어진 공간구조화 수법으로서의 '라움플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아돌프 로스의 건축사상 형성의 배경

본 장에서는 로스의 건축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유년기로 부터 미국 체재기까지를 고찰함과 동시에 당시 로스가 활동하였던 빈의 시대적 상황을 개관하므로 로스의 건축사상 형성의 배경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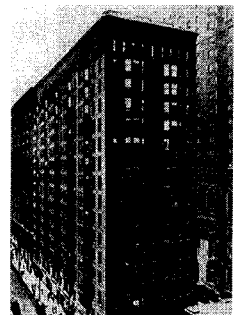
(1) 장인정신에 대한 체험

로스의 장인정신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와 공예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의 유년기의 경험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로스는 자신의 유년기의 성장환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세계가 나에게 부여하여준 (건축가라는 인생의)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어린 시절에 얻을 수 있었던 예비교육만큼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유년 시대를 보냈던 장소는 커다란 작업장이었으며 거기에는 피복산업을 제외한 모든 장인이 모여 있었다. 조각가, 석공, 연마사, 도장공, (중략) 미장공, 대장장이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모든 장인정신을 흡수할 수 있었다."¹⁰⁾ 로스가 서술하고 있는 성장환경은 조각가이며 석공장인의 책임자이기도 하였던 그의 부친에 의해 제공된 것이었다. 로스는 부친의 조각가로서 또한 장인들의 총괄 책임자로서 임하는 다양한 예술적 작업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반향을 통하여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배우게 된다. 로스가 건축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보이는 장인들 또는 공예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통괄하는 입장에서의 건축가의 관점, 자신의 작품이 회화적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고 조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 등도 결국 그의 유년시절에 경험한 부친의 조각가로서의 활동과 견해 등에 많은 영향을 받

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년기의 경험은 이후의 로스의 진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며 또한 동시에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직업인으로서의 건축가가 아닌 사회를 바라보고 그 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의 다양한 면면을 비평하는 입장으로서의 건축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년기에 조각가인 부친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한 로스는 부친의 사망 후 보수적인 모친의 교육적 열망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직업훈련학교 기계기술과에 입학 후 건축기술과로의 전과를 거쳐, 코트프리트 쟈퍼가 활약하였던 드레스덴의 왕립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로스는 후에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 교양 있는 미장공으로 있는 편이 더 가치 있다'¹¹⁾고 언급하므로 대학에서의 건축 교육에 대한 불만족함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로스는 근대적인 건축가 교육에 결코 만족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이후 로스의 건축가로서의 사상과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시카고 박람회를 계기로 방문하게 되는 미국에서의 경험들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 미국의 실용주의에 대한 체험

1893년의 여름 로스가 방문한 시카고는 시카고파가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시카고는 다니엘 번햄 등이 설계한 모나드nock 빌딩<그림 1> 등 19세기 역사주의 말기의 의미 없는 장식들을 제거하고 구조와 건축을 동일한 표현으로 통일하는 '순수한 형태'를 생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또한 로스는 한편으로 시카고 박람회장에서 미국이 지향하고



<그림 1> 모나드nock 빌딩, 시카고, 다니엘 번햄 등 설계, 1892

있었던 실용과 합리를 추구한 고전주의 건축들에 강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1898년에 로스가 구상한 황제 기념교회안과 박람회장의 조형예술관의 조형적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그림 2> 이러한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건축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로스는 그 후 빈으로의 귀국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신문사의 문화비평을 기고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주로 건축가와 가구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¹²⁾ 미국에서의 체재기간 동안 로스는 미국이 직면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며 이러한 미국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실용적인 것이 아름답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쇼이주택의 의뢰주였던 로베르트 쇼이에게 언급하고 있다.¹³⁾ 로스가 짧은 미

11) Adolf Loos, Möbel und Menschen, 1929, 8, in : Sämtliche Schriften I, p.434를 川向正人, アドルフ・ロース, 住まいの図書館出版局, 1987, p.30에서 재인용

12)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는 않으나, Burkhard Rukschcio & Roland Schachel, Adolf Loos, Leben und Werk, Salzburg & Wien 1982, p.29에 로스 자신의 언급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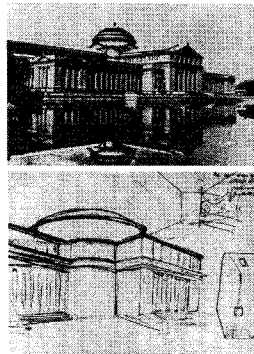
10) Kulka, Heinrich, Adolf loos: Das Werk des Architekten, Band IV der Reihe "Neues Bauen in der Welt", mit einem von Franz Gluck, Wien 1931, p.11

국체제기간 동안에 느낀 미국에 대한 인상은 비트루비우스 이래의 유럽의 건축사상에 등장하는 프리미티브 맨(소박한 인간)¹⁴⁾의 사상이 발현된 모습을 투영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로스는 당시의 미국인 모두가 그들의 의식 속에서 ‘허영을 배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으며 문화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오염되어지지 않은 정신이 지배하는 현실적인 나라로 미국을 평가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경험은 후에 크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그의 ‘장식배제’ 사상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빈의 시대적 상황

로스가 미국에서 귀국한 당시의 빈은 전근대적인 귀족사회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음과 동시에 19세기 후반의 산업발달을 계기로 새로이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이 당시에 강대한 세력을 자랑하였던 합스부르크 왕조의 귀족사회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다. 새로이 등장한 시민계급은 그들의 전통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사회에 대한 선망에서 시작되어진 허식과 허영, 과소비가 만연된 탐미주의적 시대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과거의 양식에 대한 무의미한 모방으로 허식적인 장식으로 치닫던 19세기의 역사주의와 세기말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데카당스(Decadence)적 사회풍조가 허식에 넘쳐있던 빈의 사회적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에곤 프리데르는 “그들의 가정은 거실이아니라 전당포나 골동품 상점과 같다. (중략)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공간은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¹⁶⁾고 실용과 목적이 완전히 결여되어진 당시 빈의 시민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빈의 과거의 양식들에 대한 모방과 허식에 몰두하고 있던 상황으로부터 단절,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울브리히, 요셉 호프만 등에 의해 ‘분리파(secession)’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빈 풍의 화려한 장식식이 새로이 등장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본질적인 변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빈의 상황을 로스는 ‘포템킨의 도시’¹⁷⁾에



<그림 2>
(상) 조형예술관, 시카고, 찰스. B. 에드워드 설계, 1893
(하) 로스의 황제기념교회 스케치, 1898

비유하였다. 포템킨의 도시는 우쿠라이나 지방순시에 나선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의 방문을 앞두고 시의 번영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구의 도시를 거대한 캔버스에 묘사하였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허영이 만연하였던 빈의 시민들의 생활과 그 사회와 문화가 갖는 기만성을 포템킨의 도시에 빗대어 비판하였던 것이다. 로스는 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그 근거로부터 변혁하기 전에는 건축적인 변혁도 무리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로스의 생각이 적극적인 문화비평 활동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고 종래에는 그의 건축적 사상 형성의 계기가 된다.

3. 아돌프 로스의 건축사상 형성과 건축적 특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로스의 건축사상 형성의 배경을 기반으로 로스의 건축사상 형성과 건축에의 적용을 그의 비평(논설)과 건축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로스의 건축사상의 형성은 빈의 문화와 건축에 대한 그의 비평과 저술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던 1897년부터 1918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건축사상의 분석은 이 시기에 저술한 논설을 중심으로 한다. 한편으로 그러한 그의 건축사상의 건축에의 적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시기에 이루어진 그의 건축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일상용품에 있어서의 실용의 미

미국에서 귀국한 로스는 당시 예술가들의 사교장이었던 카페하우스에서의 사교활동을 통하여 건축을 넘어선 예술, 문화 전반에 걸친 폭 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교우관계를 통하여 로스는 당시의 빈의 위선과 부패를 비판하는 동지¹⁸⁾로서의 인맥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비평가 또는 건축가로서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게 된다. 로스 최초의 문화비평은 당시 공예박물관 부속의 공예학교의 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전략) 종이에 그려지는 것에 그치는 예술은 버리자. 그렇게 하면 생활, 습관, 쾌적성, 유용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와 선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후략)”¹⁹⁾ 이러한 예술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로스의 공예에 대한 사상적 전개는 고답적인 예술적 차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공예와 동일한 실용성의 차원으로 건축을 파악하였던 쥘페의 사상과 관련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실용성에 대한 로스의 사상은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성탄절 전시회(1987)’에서의 실용품에 대한 글을 통해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전략) 근대의 정신은 무엇보다 일상용품이 실용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 정신에서 아름다움이란 최고의 완벽함을 뜻한다.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아름다울 수도 없다.(후략)”²⁰⁾ 이러한

13) 川向正人, op. cit., p.42

14) 미개의 상태로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에 대하여 모든 허위를 배제하고 자신의 본능만을 가지고 대응하는 인간을 의미.

15) Richard Neutra, Auftrag fur Morgen, Hamburg, 1962, p.180

16) 에곤 프리데르, 近代文化史, TBSブリタニカ社, 藤村 譯, 伊藤哲夫, アドルフ・ロース, 鹿島出版會, 1980. p.22에서 재인용

17) 아돌프·로스, 裝飾と犯罪-建築・文化論集, 伊藤哲夫 譯, 中央公論美術出版, 2005, pp.42-48

18) 문인인 페터 알텐베르크, 카를 크라우스, 음악가 아르놀트 쇤베르크 등.

19) Adolf Loos, Schulausstellung der Kunstgewebeschool, 1897. 10, in : Sämtliche Schriften I, pp.140-142를 川向正人, op. cit., p.58에서 재인용

로스의 실용품에 대한 사상은 그의 최초의 건축적 작업이었던 궁정 재단사인 에르네스트 에벤슈타인의 점포 인테리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그림 3> 치밀한 형태적 공간 구성과 기능에 충실하게 디자인되어진 집기류와 손잡이 장식, 또한 적절한 재료의 선택 등이 그의 실용적인 것이 아름답다는 사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3> 에벤슈타인 상점, 빈, 아돌프 로스, 1897

(2) 실용적 미의 건축적 적용과 이상적 주거공간에 대한 견해

로스가 재차 실용품과 미의 관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오토 와그너가 '황제기념박람회'에 출품한 자택의 침실<그림 4>과 욕실 디자인에 관한 견해에서이다. 로스는 와그너의 디자인에 대해서 그의 천재성을 찬미하면서도 한 사람의 건축가에 의해 모든 디자인이 결정되어지는 경향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오토 와그너의 방은 아름답다. 그것은 한 사람의 건축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가는 자신을 위한 장식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 방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방은 다른 사람의 특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²¹⁾ 디자인한 사람과 거주자가 일치한다는 점에 있어서 와그너의 디자인은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해로서 건축가가 주거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간섭하여 거주자의 의향이 반영될 여지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로스의 견해였다.²²⁾ 이러한 로스의 견해는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건축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로스는 1903년 '나의 아내를 위한 침실' <그림 5>의 발표를 통하여 시각을 자극하지 않는 장식 없는 공간, 즉 완전히 침묵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와



<그림 4> 와그너의 침실, 빈, 오토 와그너, 1898



<그림 5> 나의 아내를 위한 침실, 빈, 아돌프 로스, 1903

그녀의 침실에 대한 그의 반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3)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근대성의 표현으로서의 실용성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로스의 견해는 후에 그의 '장식배제론'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실용성에 대한 앞의 글 '완벽한 것은 근대적이며 완벽하지 않은 것은 근대적이지 않다'의 의미를 해석하면 '완벽한 것은 새로운 것이며, 완벽하지 않은 것은 새롭지 않다'라는 것으로, 결국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개념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완벽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할지라도 근대적이고 새로운 것이며, 따라서 실용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로스의 친구의 대립개념이 오토 와그너로 대표되어지는 당시의 모더니즘적 가치관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로스의 실용성에 대한 사상이 건축적으로 극명하게 표현되어진 것이 카페 뮤제움이다. 당시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루드비히 헤베시는 "카페 뮤제움에서 로스는 성실한 비분리파 회원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했다. (중략) 지극히 허무적이다. 그러나 매혹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이다.(중략) 그는 예술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는 순수하게 실용적인 것을 만들었다."²³⁾고 평가하고 있다. 로스는 카페 뮤제움의 실내공간계획에 있어 당시 일반적이었던 낮은 천정의 아치로 둘러싸여진 공간적 형태<그림 6>를 배제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카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나의 커다란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인테리어의 세부에 있어서는 로스가 당시 '피복의 원리'에서 "진실한 건축가라면 먼저 만들고자 하는 공간의 목적을 충족하는 효과를 생각하여야 한다. (중략) 이러한 공간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효과는 재료와 형태에 의해 발휘될 수 있다."²⁴⁾ 또한 "어떤 재료도 그 고유의 조형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재료의 형태를 받아드릴 수는 없다."라는 로스의 '형태와 재료'에 대한 사상이 백색으로 도색한 아치형의 높은 천정, 노출 전구 조명, 천연 마호가니 마감재의 사용, 안락함과 견고함을 기능적으로 유지하도록 디자인 된 타원형



<그림 6> 카페 하우스 그리엔슈타인도르, R. 베르켈의 회화작품, 1896



<그림 7> 카페 뮤제움, 빈, 아돌프 로스, 1899

20)Adolf Loos, Ornament und Verbrechen, 현미정 역, 소오건축, 2006, p.27
21)Adolf Loos, Das Sitzmotel, Sämtliche Schriften I, 1898. 6, p.48을 川向正人, op. cit., p.69에서 재인용
22)이러한 견해는 "우리들 주거의 실내공간을 만드는 것은 고고학자도 아니고 실내장식가도, 건축가도 아니며, (중략) 거주자 자신이 각자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로스 자신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돌프 로스, 伊藤哲夫 譯, op. cit., p.3

23)Ludwig Hevesi, Kunst auf der Strasse, Fremden-Blatt, Wien, 1899, 5을 川向正人, op. cit., p.84에서 재인용
24)아돌프 로스, 伊藤哲夫 譯, op. cit., p.33

의 곡면 구조 가구 등을 통하여 제안되었다.<그림 7>

1900년에 들어서면서 로스는 본격적인 문화비평가로서의 활동을 전개하며 자신만의 잡지를 출판하기에 이른다. 그 목적은 양질의 유럽문화를 일반 생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함에 있었다. 그러나 잡지를 통한 건축의 질적인 면의 전달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로스는 '주택 견학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게 된다. '주택의 모드'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린 견학회의 안내에서 로스는 호프만 등의 새로움을 경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닌 시대의 제약을 넘어 오랫동안 이용이 가능한 거주공간의 창조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스의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로스의 '실용적 기능미'가 거주공간에 적용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근대성의 표현으로서의 실용성의 적용이야말로 새로운 거주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스의 생각은 호프만 등이 주장하는 '응용예술'과 그의 건축에의 적용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로스는 '응용예술'을 실용품에 예술을 첨가하려는 행위로 보았다. 인간의 정신에 관련한 순수한 표현행위인 예술은 실용성에 종속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실용품에 예술을 응용하는 것은 실용품과 예술을 함께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했다.²⁵⁾ 즉 실용품에 대한 의식적이며 작위적인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4) 허식의 배제와 새로운 공간적 사고에 의한 경제성의 추구

상기와 같은 로스의 사상이 보다 정리되어 극명하게 표출되어진 것은 1908년의 논설 '장식과 범죄'를 통해서였다. 이 논설에서 로스가 주장하는 장식의 배제는 실용의 미, 기능의 미와 무관한 '무의미하고 과도한 장식' 또는 '허식'의 배제를 의미한다. 로스는 이러한 허식의 배제가 경제적 실리의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전략) 장식은 허비된 노동력이며 그로 인해 허비된 건강이다. 오늘날에는 허비된 재료를 뜻하기도 하며 그래서 둘 다 허비된 자원을 의미한다."²⁶⁾ 1910년에 완공되어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미하에르 광장의 건물(Michaelerplatz)은 이러한 로스의 '허식의 배제'와 '실리적 건축'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이다.²⁷⁾ 1, 2층의 점포부분은 4개의 토스카나식 대리석 원기둥이 지지하는 깊이감을 주는 포티코에 의한 파사드 구성, 상층의 주거부분과 구별되는 화려한 대리석 마감재의 사용, 황동 프레임의 베이 윈도우, 주변의 도시적 스케일과 매치하는 열주 등의 요소들로 인하여 장엄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림 8> 도시를 향한 상업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

25) 로스는 '장식의 변질'에서 "현대의 인간은 일상용품에 예술을 구겨 넣는 것을 예술에 가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굴욕이라고 느낀다."고 하며 응용예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Adolf Loos, 현미정 역, op. cit., p.287

26) Adolf Loos, 현미정 역, op. cit., p.293

27) 카를 클라우스는 "그곳에 그는 사상을 건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川向正人, op. cit., p.171

하도록 의도되어진 것이다. 반대로 상층의 주거부분은 플라스틱 마감으로 하층부와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드러내며 도시적인 기능과 구별되어야 할 주거로서의 내부를 감싸는 피복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포티코에 사용된 원기둥들의 의미이다. 이 구조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 원기둥들은 하나의 상징적 기호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기능하는 장식적 요소인 것이다. 이 기둥들은 상층의 주거부분의 구조와 불일치함을 표현하므로 용도에 의해 분리되어진 공간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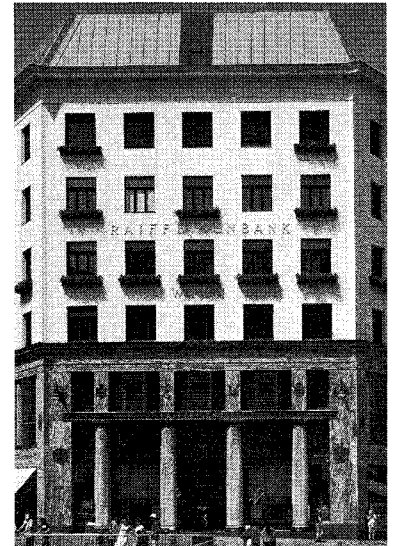
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로스의 건축에서 사용되어지는 장식적 요소들은 그가 배제하고자하였던 허식적이고 무의미한 장식이 아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공간 안에 존재함으로써 실용적인 미를 연출하는 기능적 장식인 것이다. 또한 로스는 이 건물의 내부공간계획에서 자신이 주장하였던 실리적인 공간 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라멘구조에 의한 내부 공간구성의 자유도 확보, 공간별 천정고의 변화와 계단에 의한 다양한 공간체험과 함께 공간의 용도에 따른 기능성의 확보 등 공간의 경제적, 실용적 사고에 의한 로스의 설계의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그림 9>

이상과 같은 로스의 건축과 공간적 특성이 그의 공간적 사고로 명확히 표현된 것은 1913년의 에세이 '나의 건축학교'에서 이었다. 로스는 건축을 내부에서 외부로 계획할 것을 주장하며 건축학도들에게 새로운 공간 사고의 방법론을 역설하고 있다. "(전략) 먼저 내부공간으로부터 생각해야 한다. 바닥, 벽, 천정에 의해 형성되어진 공간에 대한 사고가 가장 중요하며, 파사드는 그 다음이다. 공간의 축선을 잘 생각할 것, 거기에 정확한 가구배치를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학생은 3차원의 공간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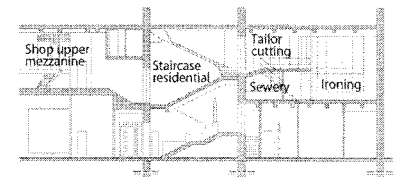
(5) 로스의 건축사상과 건축적 특성

전 항에서 로스의 건축·문화비평과 건축작품을 통하여 고찰한 로스의 건축사상을 정리하면 예술품과 구별되는 실용품의

28) 아돌프·로스, 伊藤哲夫 譯, op. cit., pp.138-139



<그림 8> 미하에르 광장의 건물의 파사드, 빈, 아돌프 로스, 1910



<그림 9> 공간별 기능에 따른 중2층의 설치, 다양한 층고와 바닥 레벨 변화 등에 의한 3차원적 공간 구성

‘실용적 미’에 대한 확고한 사고가 주거와 상업공간 등의 건축 공간을 통하여 크게 ‘허식의 배제’와 ‘실리적 공간 활용’이라는 건축적, 공간적 표현으로 확장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로스의 사상은 동시대에 건축되어진 그의 건축작품들을 통하여 ‘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계획 방법론은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입체적 공간사고’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완성되어져 로스 건축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 중심의 사상은 그의 독자적인 건축수법 ‘라움플란’이 주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스의 건축사상에는 ‘완벽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할지라도 근대적이고 새로운 것이며, 따라서 실용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시간성을 초월한 로스의 ‘근대성’의 관점이 저면에 흐르고 있다. 로스의 작품에서 보이는 고전주의의 영향, 즉 고전적 모티브의 차용은 이러한 근대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²⁹⁾

4. 공간의 실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수법 라움플란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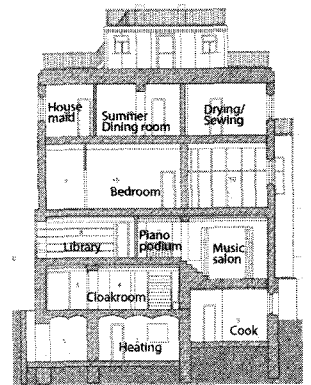
앞 장에서의 로스의 사상과 건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로스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건축공간은 단순한 논리의 산물로서가 아닌 실용성(기능성), 경제성과 같은 명확한 의미와 내용을 내포하는 실리를 추구한 건축공간이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의 건축사상의 결실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라움플란’이라는 로스 고유의 공간적 사고에 의한 건축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실제적으로 로스의 라움플란이 적용되어진 건축공간³⁰⁾을 로스의 건축사상에 의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므로 그의 건축사상이 건축수법으로서의 라움플란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과 그 공간적 특성을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1) Haus Strasser, Wien. (1919)

슈트랏사 주택은 로스의 라움플란이 최초로 적용된 작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로스가 라움플란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1929년에 쓴 ‘요제프 파일리히’에서였다. 즉 이 시기의 라움플란은 로스에게 있어 개념적으로 완전히 정

리되어진 상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①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기존 건물의 개축인 스트랏사 주택은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층과 일층 사이에 중2층을 삽입하여 지상 4층(일부 지하)의 건물로 개축되어진다. 중2층에는 서재와 음악실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부가되어 거주자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천정고가 조정되어진 1층의 현관과 현관홀의 천정고는 2미터 정도로 낮아지나 3×3.5m 넓이의 현관홀의 확보와 벽과 천정의 백색 도색을 통하여 압박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관홀과 거실과의 천정고의 차이는 심리적으로 거실공간의 개방감을 확장하게 한다. 또한 상층으로 연결을 위한 계단은 기존 건물의 내력벽에 의해 분리되어진 각각의 공간들을 공간적 허비를 최소화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층으로 회전하도록 배치하여 수직적 공간의 연결성과 시각적 분리를 명확히 한다. 로스는 이러한 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을 통하여 주거로서의 공용공간과 사적 공간간의 위계관계를 확립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중2층의 삽입에 의한 공간별 천정고의 조절 및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수직적 공간 위계

②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 거실에 사용된 백색 목재 패널 마감은 거실 전체의 일체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접한 식당의 대리석 벽면 마감과의 대비로 공간적 차별성을 강하게 인식케 한다. 또한 공간을 감싸 듯 거실에 설치된 알코브는 낮은 천정고와 천정에 설치된 백색의 비구조적인 장식보와 기둥에 의해 독립적인 공간감을 부여하여 거실공간의 친밀성을 배가 시킨다.<그림 11> 식당의 벽면은 대리석 마감과 고전풍의 벽면부조, 대칭적 공간형태에 의한 시각적 강조 등에 의해 고전적인 식당의 분위기를 연출한다.<그림 12> 음악실은 식당과 동일한 천정 형태로 공간적 일체감을 가지나 식당과 차별화된 벽면 스티코 마감으로 개별화된 공간으로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두 공간 사이는 커튼으로 분리가 가능하여 목적에 따라 연결과 분리를 가



<그림 11> 거실의 친밀성이 강조된 알코브와 계단을 통하여 입체적 연결되는 서재



<그림 12> 식당: 벽면부조와 컬러 대리석 마감, 대칭형의 공간 형태가 고전적 분위기를 연출

29) '건축에 있어서의 신구의 방향'에서 로스는 "장래의 위대한 건축가는 고전주의자일 것이다. 즉 선배 건축가들의 작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고전적 고대에 직접 의거하는 고전주의자이다."라고 고전·고대의 인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아돌프·로스, Ibid., p.61
30) 하인리히 쿨카에 의해 출판되어진 로스의 건축작품집 'Adolf Loos'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함. 岩下眞好 등 역, op. cit., pp.27-46

능케 하고 있다. 피아노 연주실은 음악실과 마감재를 공유하므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바닥의 레벨 변화에 의해 천정고를 낮게 조절하여 피아노 연주를 위한 최적의 무대공간을 생성시키고 있으며 두 공간 사이에는 계단과 함께 식당의 마감재와 동일한 컬러 대리석의 고전풍 기둥을 두어 식당, 음악실, 피아노 연주실로 단편화된 공간들을 재료와 공간형태에 의해 통합시키고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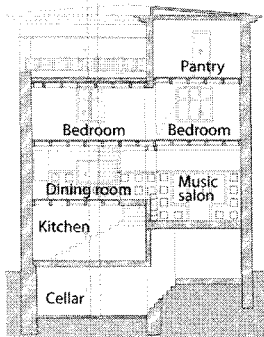


<그림 13> 계단과 상징적 기둥에 의한 시각적 연결성과 신체적 분절

(2) Haus Rufer, Wien. (1922)

스트라사 주택에 이어 로스의 라움플란이 실제적으로 실현³¹⁾되어진 것은 루퍼 주택에서였다. 루퍼 주택은 스트라사 주택과는 달리 신축 건물로서 로스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적, 의미에 대응하는 보다 자유로운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①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로스는 10×10.4m의 비교적 협소한 건축면적 안에 자신이 목적하는 주거로서의 기능적 요소를 완비하기 위하여 사면의 벽과 중앙의 기둥으로 구성되는 최소한의 구조와 주어진 부지의 레벨차를 최대한 이용한 공간구성을 채용하여 전체 공간의 자유로운 레벨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분한 넓이와 천정고를 필요로 하는 음악 살롱과 친밀성의 확보를 위해 낮은 천정이 요구되는 식당의 상반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레벨차에 의한 입체적인 공간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계획적 접근은 로스가 강조하였던 3차원적인 공간 사고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외부계단에 의한 내부로의 진입과 내부에서의 이동을 위한 계단을 분리함으로써 주거로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리인실, 메인 주방, 중앙 난방실 등을 기준층에 배치하고 공적인 성격의 공간인 음악 살롱과 식당 등을 1층에, 사적인 공간인 욕실과 개인 침실들을 2층에 배치하여 기능적으로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그림 14> 또한 가장 낮은 레벨에 위치한 현관홀과 연결하여 배치한 양복장을 메인 층으로의 이동을 위한 계단 밑에 설치한 화장실과 같은 레벨에 위치시키므로 공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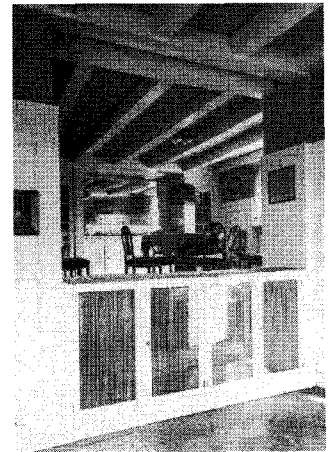


<그림 14> 공용공간과 사적공간, 서비스 공간과 메인공간의 위계적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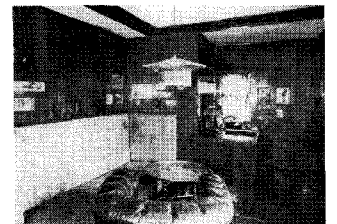
②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 음악 살롱과 계단은 천정의 보들의 유무에 따라 시각에 의한 공간적

분절을 인식시키며 계단을 매개로 음악 살롱과 식당은 부분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 식당은 중앙에 배치된 거울과 그 양 옆에 설치된 벽면선반, 중앙의 돌출 창 등의 좌우 대칭적 구성으로 식당으로서의 한정되어진 공간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서로 신체적으로 분절되면서도 시각적으로 상호 간섭하는 세 공간은 음악 살롱으로부터 식당까지의 보의 조형적 형태, 백색 목재 패널 마감 등으로 시각적인 연속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루퍼 주택에서는 스트라사 주택에서 강조되었던 실 단위의 강한 분절은 보이지 않으며, 도리어 중앙의 기둥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간을 통합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러한 의도는 음악 살롱을 매개로 하여 식당의 시선을 외부로 유도함으로 상호간의 시각적 연결 관계를 강화하여 바닥 레벨의 차이에 의한 공간 상호간의 신체적 경계를 완화시켜 공간간의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이다.<그림 15>

또한 동일한 공간레벨에서 유일하게 폐쇄적인 공간인 서재는 나뭇결 문양의 합판 내장재로 타 공간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공간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6> 루퍼 주택에서의 각 공간의 목적에 따른 공간 상호간의 관계는 스트라사 주택의 부가적인 관계에서 상호침투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공간간의 상호 관계가 보다 긴밀하여졌다. 또한 스트라사 주택에서 이루어졌던 공간 형태의 대칭적 공간형태에 의한 고전주의적 수법은 건재하나 고전적 장식의 표현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레벨차와 천정 구조에 의한 음악 살롱과 식당의 신체적 분절과 시각적 연계



<그림 16> 서재: 차별된 마감재의 사용으로 독립적이며 폐쇄적 공간 성격을 표현

(3) Haus Tristan Tzara, Paris.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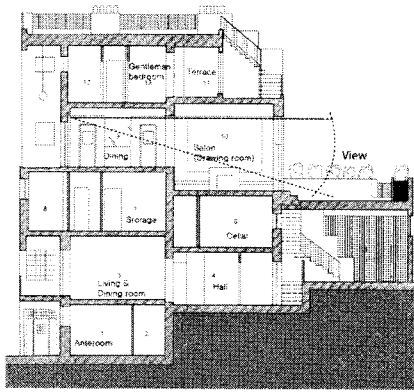
(3) Haus Tristan Tzara, Paris. (1926)

트리스탄 쾨라 주택은 로스의 만년의 건축가로서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파리에서의 경험이 반영되어 라움플란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성숙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①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쾨라 주택의 내부공간의 구성은 2층에 위치한 임대용 주거공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방문자는 1층의 현관으로부터 벽면을 따라 꺾여지는 계단을 통하여 메인 현관홀, 주방 등이 있는 3층의 피아노 노블레(piano nobile)로 접근하게 된다.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식당과 살롱 등이 위치한 4층으로 3층의 현관홀을 거쳐 접근토록 하며, 그 위의 층에 침실 등의 사적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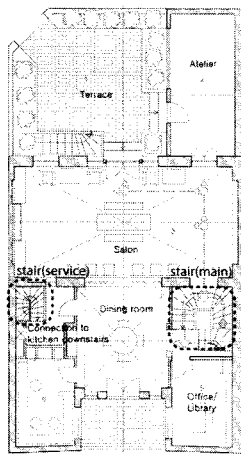
31) 로스의 작품집 'Adolf Loos'에서 라움플란이 적용되었다고 평가한 작품 중 계획안을 제외한 실제 건축이 이루어진 작품만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공간구성 방식은 로스의 라옴플란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공용공간과 사적공간, 서비스공간과 메인공간의 수직적인 위계의 표출이기도 하다. 소규모의 부지 안에서 예전의 상류층이 향유하였던 살롱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능



<그림 17> 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한 수직적 공간구성과 식당, 살롱, 홀의 수평적 관계 구축에 의한 시각적 개방성의 확대

적으로 담아내고자했던 로스의 의도는 주택 전면과 후면 부지의 4.5m의 고저 차와 스피릿 레벨(split level)을 이용한 살롱 공간의 필요면적 및 천정고의 확보, 식당, 살롱, 테라스의 연속적 배치에 의한 내·외부 공간의 연결성과 시각적 개방성의 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7> 이러한 공간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계단의 기능적 활용이다. 쾰라 주택의 계단은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모든 공간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루퍼 주택의 계단형식과 차이를 보이나 서비스 공간과 메인공간별로 전용계단이 설치되어짐으로 동선의 흐름과 전체적인 공간 위계가 보다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라옴플란이 추구하고자하는 공간의 분절과 분할 및 그 관련성의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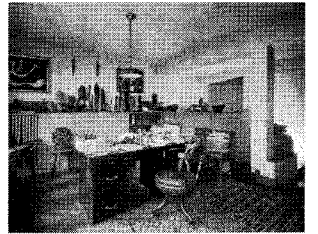
<그림 18> 3층 평면도: 공간의 목적과 기능별로 분리되어진 계단과 각 공간과의 연계

②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 2층의 현관홀을 통하여 진입한 3층의 살롱은 벽난로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좌우 대칭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파티와 담화 등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공간적 목적에 적합한 형태를 제안하려는 로스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으로 제한적인 건축면적 안에서 공간의 유효활용을 위하여 식당과 살롱을 바닥 레벨의 차이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라옴플란의 수법은 루퍼 주택과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쾰라 주택의 식당은 살롱 사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개방과 폐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커튼에 의한 시각적 관계조절과 바닥 레벨차에 의한 신체적 분절을 병행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명확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두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은 계단실에 의해 공간상에서의 시각적 인식을 차폐하므로 보다 신체적 분절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적으

로 개방될 경우의 두 공간은 동일한 목재 합판의 마감재와 천정과 벽 등의 조형적 요소의 통일로 하나의 공간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19> 예술가인 쾰라를 위한 작업실은 루퍼주택의 서재와 같이 시각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위치하며 공간조형요소로는 동일하나 마감재에 있어서 식당 및 살롱과 차별화되고 있다.<그림 20> 이상과 같이 살펴 본 쾰라 주택의 특징은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표현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의 작품들과 비교해 고전적 공간 형태언어로서의 장식적 요소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전 보다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있어 추상적인 감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살롱과 식당: 커튼과 레벨차에 의한 신체적 분절과 동일한 공간 조형요소 및 재료의 사용에 의한 시각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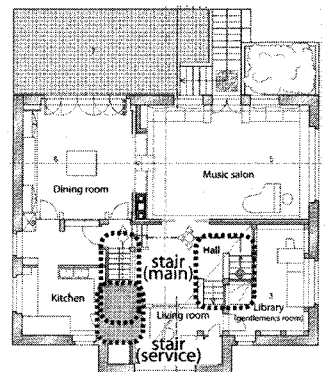


<그림 20> 작업실: 마감재의 차별성에 의한 독립적 공간의 성격 표현

(4) Haus Moller, Wien. (1928)

몰러 주택은 트리스탄 쾰라 주택에 이어 실제로 라옴플란이 적용되어진 작품으로 로스의 라옴플란에 대한 사고가 거의 완성되어지는 시기의 작품이다,

①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몰러 주택은 서비스공간과 메인공간,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수직적 공간 구성에 있어 쾰라 주택과 다르지 않으나 수평적인 공간구성은 공간간의 분절과 연계가 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그로 인해 계단의 배치와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쾰라 주택과는 달리 부지의 고저차가 없는 몰러 주택에서 로스는 1층 서비스 공간의 천정고를 조작하여 2층 바닥의 레벨을 조절하여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분절을 생성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계단을 통해 2층에 진입하면 홀을 중심으로 서비스공간인 주방과 메인공간인 음악 살롱으로 공간적 분절이 이루어진다.<그림 21> 음악 살롱의 천정고는 3.2m로 홀과 동일하며 각 공간은 이 천정고를 기준으로 바닥의 레벨차를 설정하고 있다. 높은 천정고가 필요한 음악 살롱에서부터 친밀하고 안정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서재까지 다양한 바닥레벨의 변화는 각 공간에 요구되는 기능에 적절



<그림 21> 피아노 노빌레: 서비스 공간과 메인 공간,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에 있어서의 계단의 분리와 연계

하도록 합리적인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적공간인 3층으로의 계단은 명확히 구분되어 각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체적 시점 이동에 의해서만이 연결되어지도록 의도되는 라움플란의 수법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단차에 의해서 분리된 식당과 음악 홀은 계단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공간사이에 설치된 가동식 칸막이와 수납형 계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보다 확실한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있다. 이것은 라움플란의 입체적인 공간구성을 통하여 제한적인 건축면적 안에서 각 공간에 요구되는 기능들이 가장 효율적(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하는 의도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 로스는 물러 주택의 공간간의 연계과정에서 다른 주택과는 달리 신체적 이동에 의한 시퀀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빛의 강약과 명암의 변화를 리드미컬하게 조절하므로 공간의 연계와 분절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있다.<그림 22> 또한 이러한 빛의 조절은 공간별 마감재에 의해서 더욱 강조된다. 홀의 응접코너에 사용된 다양한 색상으로 도색된 목재 합판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적 목적에 합당하도록 밝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천정과 함께 좁은 계단과 대비되는 강한 개방감을 경험하게 한다. 음악 살롱의 벽은 오크메(okume)합판, 바닥은 흑단으로 마감하여 안정적이고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식당과는 동일한 천정마감으로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질감이 다른 목재 합판과 기둥부의 트래버틴의 사용으로 상호간의 공간적 분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성된 개인공간인 서재는 짜라 주택 등과 동일하게 광택 오크를 사용하여 타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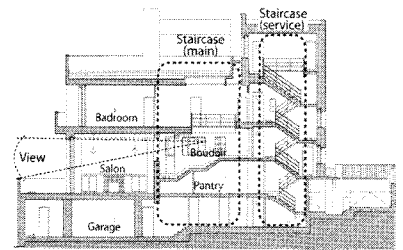
<그림 22> Cloakroom(1층)에서 Main Hall을 바라봄: 빛의 강약과 명암의 변화에 의해 명료해지는 공간의 연속과 분절

(5) Haus Müller, Prague. (1930)

1930년에 준공한 물러 주택은 1919년 이후 로스가 시도하여 온 라움플란의 수법이 집대성 되어진 사례³²⁾라고 볼 수 있다.

①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1층의 서비스 공간과 2층의 피아노 노빌레, 3층의 메인 침실 등으로 이어지는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수직적 위계에 의한 공간 구성은 서비스 영역과 메인 생활공간영역에 분리되어 설치된 계단에 의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져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기존의 라움플란이 적용된 주택들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3> 또한 현관으로부터 살롱으로 이

어지는 공간의 연속성은 지금까지 로스가 시도하여왔던 수법들이 모두 망라되어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물러 주택에서 쓰였던 빛의 강약과 명암에 의한 리드미컬한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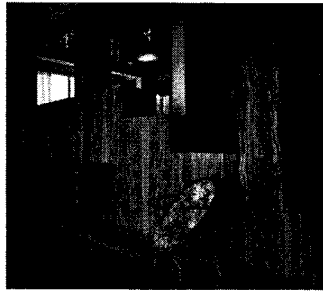
<그림 23>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수직적 위계와 영역별로 분리된 계단 및 내·외부의 시각적 연계

연계와 흐름은 굴절되는 계단에 의한 시선의 차단과 개방이라는 공간적 요소와 함께 보다 극적인 시퀀스의 변화와 함께 공간의 수직적 확장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스프릿 레벨의 도입은 살롱의 공간적 기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도이며 초기의 루퍼 주택에 비해 수평적·수직적 깊이감이 보다 확장되고 있다. 살롱으로 진입하면 좌측으로 약 1m의 바닥레벨을 상승시켜 식당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식당은 살롱과 동일한 천정면을 공유함으로써 공간의 수평적 확장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바닥의 레벨차와 기둥벽에 의해 공간의 분절을 인식하게 한다. 로스는 특히 짜라 주택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선에 의한 공간의 상호관입 효과를 물러 주택에서 보다 면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부인실(boudoir)의 창을 통한 시선은 식당과 외부의 테라스를 넘어 프라하의 풍경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개구부, 통로, 계단, 테라스의 배치, 특히 각 공간간의 시선적 접속의 수법은 로스가 말하는 '3차원 체스게임'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계단을 통해 신체가 느끼는 복잡한 상하의 운동감각과 시선의 변화에 의한 공간적 연결은 주거공간에 요구되는 경제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간의 단절과 연속을 상대적으로 병렬 시킴으로 신체적 감각과 시각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보다 풍부한 공간감을 생활공간 속에 표현하고자한 로스의 라움플란이 추구하는 최종적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②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 로스는 물러 주택에서도 변함없이 살롱과 식당의 공간형태를 고전적인 좌우 대칭적 구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양 공간을 구분하는 기둥의 대칭적 분할을 통해서 이러한 구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둥의 대칭적 구도는 그 중심에 배치된 계단을 향해 새로운 시선 축을 형성하게 하여 살롱에서 식당으로 또 서재와 부인실로의 공간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선 축의 설정은 바닥의 레벨차와 기둥(난간벽)에 의한 공간적 분절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공간간의 상호 연계성을 회복하고자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그림 24> 이러한 물러 주택의 공간적 특성은 각 공간에 사용된 다양한 마감재에 의해 그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 살롱의 천정과 벽은 석회로 마감되어 평면적인 단순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식당으로 연결되는 기둥(난간벽)은 녹색의 화려한 대리석으로 분절하여 공간의 분

32)K. Kelinman, L. van Duzer, Villa Müller: A Work of Adolf Loos,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1994, p.38

결과 변화를 상징한다. 또한 식당의 천정은 마호가니로 마감하여 살롱과의 공간적 연계성과 시각적 차별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공간으로서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인실은 레몬우드, 서재는 마호가니 등 각 공간의 사용자를 고려한 재료를 선정하고 있다. 로스의 이러한 마감재의 사용은 재료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광택, 색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공간에 요구되는 공간 별 목적 및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한 라움플란의 수법이다.



<그림 24> 기둥과 난간벽에 의한 살롱과 식당의 공간적 분절 및 기둥의 대칭적 배치에 의한 새로운 시선축의 형성

5. 결론: 라움플란의 특성

전 장에서는 라움플란이 적용되어진 로스의 주택작품을 대상으로 로스의 사상에서 추출한 '공간의 구성에 의한 기능성·경제성의 추구', '공간의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형태와 재료의 선정'이라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주택작품에 적용된 공간구성의 방법과 표현수법에 근거하여 라움플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간의 분절과 연속: 로스가 라움플란에서 추구하였던 각 공간(Raum)의 용도에 대응하는 공간 자체의 효과는 인접하는 공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공간의 목적과 의미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공간의 형태, 다시 말해 넓이와 천정고 등과 관련하는 다른 공간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사고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이 전체의 공간 안에서 각각의 용도에 대응하여 분절, 분할되고 때로는 커튼이나 가동식 문 등에 의해 전체 공간 안에서 입체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로스의 라움플란은 각각의 목적과 의미를 충족하는 치수(면적, 천정고 등)가 그 본래의 질적 가치를 유지하며 다른 공간들과 유연하게 관계함으로 전체로서의 공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공간의 경제적, 실리적 사고의 구현인 것이다.

(2) 공간의 단편화: 로스의 라움플란에 의해 분할, 분절되어진 공간은 완결되어진 독립적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전체의 단편으로 존재한다. 즉 전체공간은 다수의 단위공간으로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단편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로스는 라움플란을 통해서 단위공간의 목적과 의미를 충족하는 효과(형태와 재료 등에 의함)를 먼저 생각하였고 그 효과에 합치하는 자유로운 치수(넓이, 높이)를 전체공간의 분할, 분절과 조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공간은 전체의 단편으로 단편들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는 이러한 단편들의 관계를

신체적 분절을 연결하는 기능적 공간요소로서의 계단과 시선축이라는 시각적 연계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다.

(3) 다중적 시선축에 의한 중첩과 투과: 로스의 라움플란에 있어서의 공간의 분절과 연속은 신체적 분절과 시각적 연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간의 형태와 가구적 요소, 기둥 등에 의한 좌우 대칭구조는 상호 관련하는 공간들 사이에 다중적인 시선 축을 형성시켜 인접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중첩, 투과시키며 공간에 깊이감과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다중적 시선축에 의해 각각의 공간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인접하는 공간과의 연속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대칭적 공간구조에 의한 시선축의 시각적 전개는 개구부, 계단, 마감재 등의 요소들에 의해 촉진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대칭적 공간구조에 의한 시선축의 생성은 고전적 공간의 질서와 조화를 지향하는 로스의 건축사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4) 위계에 의한 공간의 구조화: 상기에서 살펴본 단편화된 공간들의 분절과 연계는 주거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영역성의 틀, 메인 기능과 서비스 기능의 분리라는 주생활에 있어서의 필요충분조건들을 실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 의거한 공간적 위계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조절되어지고 조직화됨으로 완성되어진다. 즉 로스의 라움플란은 단위공간의 목적과 의미에 대응하는 공간의 형태, 마감재 등의 표현수법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효과와 그 효과에 합치하는 자유로운 치수를 갖는 단편화 되어진 각 공간(Raum)들을 하나의 전체 공간(3차원의 공간)안에서 구조적으로 재 조직화하여 완성해가는 공간구조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中村敏男 역, 青土社, 2003
2. Münz. L. and Künstler, G., Adolf Loos: Pioneer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1955
3. Kulka, Heinrich, Adolf loos: Das Werk des Architekten, 岩下眞好 등譯, 泰流社, 1984
4. Adolf Loos, Ornament und Verbrechen, 현미정 역, 소오건축, 2006
5. 아돌프·로스, 裝飾と犯罪-建築·文化論集, 伊藤哲夫 譯, 中央公論美術出版, 2005
6. Kulka, Heinrich, Adolf loos: Das Werk des Architekten, Band IV der Reihe "Neues Bauen in der Welt", mit einem von Franz Gluck, Wien 1931
7. 川向正人, 아돌프·로스, 住まいの図書館出版局, 1987
8. Richard Neutra, Auftrag fur Morgen, Hamburg, 1962
9. K. Kelinman, L. van Duzer, Villa Müller: A Work of Adolf Loos,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1994
10. Ralf Bock, Adolf Loos: Works and Projects, Skira, 2007
11. August Sarnitz, Adolf Loos, 1870-1933: Architect, Cultural Critic, Dandy, Taschen, 2003
12. Panayotic Tourmikiotis, Adolf Loo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2
13. Beatriz Colomina, Privacy and Publicity: Modern Architecture as Mass Media, 松畑 強 譯, 鹿島出版會, 1996
14. 伊藤哲夫, 아돌프·로스, SD選書 No. 165, 鹿島出版會, 1980
15. Hilde Heynen, 건축과 현대성, 이경창 외 역, 시공문화사, 2008

<접수 : 2008. 10. 31>